

전남 서부권

소값 폭락...함평 축산농 ‘시름’

송아지 가격도 하락...구제역 이겨내고도 고충 커져

함평군 한우 소비촉진 캠페인·시식회 등 대책 마련

최근 산지 소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송아지 가격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함평 축산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한우 사육두수는 300만여 두에 육박하고 구제역으로 피해가 컸던 돼지와 달리 소는 15만여 두가 살 처분돼 공급량도 거의 줄지 않은데다 최근 국제 곡물값 상승으로 사료 값은 오른 반면 소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축산 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함평군은 지난 2008년 한우특구로 지정돼 한우사육과 축사시설 등에 많은 예산을 들여 적극 지원하는 등 군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의 대책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 산지 소값이 하락한다면 영세 축산 농가들의 경제적 부

담은 크게 가중될 것이고, 자칫 소값 하락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평축협 등에 따르면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두수는 3만5000여두로 지난해에 비해 마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 가축시장의 한우 매매가격은 2010년 평균 kg당 9000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kg당 7000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 암송아지 가격도 지난해 평균 250만원에 거래됐던 가격이 210만원 선으로 40만원 가량 떨어진 가격에 거래 된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소값하락으로 축산농민들의 고심은 가중되고 매매 또한 활기를 찾지 못하는등 뚜렷한 방안이 없어 농가들은 산지 소값이 안정되기만

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산지 한우가격이 급락한 것은 구제역 파동으로 한우 쇠고기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데다 송아지 가격은 구제역 기간동안 전국 경매시장 폐장으로 늪은 송아지들이 폭탄 출하 되어서 가격이 하락중인 것으로 보고있다.

축산농가 A씨(함평읍)는 “구제역 파동이후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값이 계속해 떨어지고 있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비육소 사육 부담은 늘어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힘든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구제역 파동이후 소비는 추축하고 작년 동해피해로 사료작물 작황이 안좋아 국제 곡물이 상승으로 축산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다음달 2일 국회 후생복지관에서 캠페인및 시식회를 계획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윤희기자 hwang@



진도 ‘관매 매화의 섬’ 한마당 축제 성료

진도군 ‘관매 매화의 섬’ 한마당 행사가 지난 21일 ‘국립공원 명품 마을 제1호’인 관매도 일원에서 열렸다.

농어촌희망재단에서 후원하는 농산어촌 마을 공동체 축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 행사는 도농교류 활성화와 다양한 도시민의 농촌 체험을 진을 위해 다음달 2일 국회 후생복지관에서 캠페인및 시식회를 계획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마실길 투어와 톳빈대떡 체험, 민속놀이 체험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관매도 명품마을 운영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외지상인 없이 마을 청년회 등 마을단위 모임에서 저렴한 가격에 ‘톳 빈대떡’ 등을 만들어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한편 관매도는 총 연장 3km의 해수욕장 뒤편에 50~100년생인 아름드리 곱솔(해송)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등 경관이 빼어나다. 해수욕장 3km 구간에는 피톤치드길, 해당화길 등 테마길과 습지관찰로가 조성되어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형영기자 hypark@

주민숙원 진도 실내체육관 오늘 개관

진도 실내 체육관이 문을 연다.

진도군은 27일 진도 실내체육관 개관식 및 개관 기념 제1회 협회장기 친선배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동진 군수를 비롯해 기관단체장, 체육회·생활체육 관계자 등 주요 인사 100여명과 배구 선수, 주민 400여명이 참석한다.

진도 실내체육관은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됐으며 진도읍 동외리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에 관람석 1509석의 경기장과 생활체육교실, 선수대기실, 샤워실, 타카실 등을 갖췄다.



이동진 군수는 “주민의 오랜 숙원이던 실내 체육관을 개관하게 되어 앞으로는 주민들이 날씨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마음 놓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형영기자 hypark@

전 북

한전, 철탑부지 토지수용령 검토

새만금 주민 거센 반발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단이 현재 추진중인 새만금지구 전력공급 사업과 관련해 철탑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령을 검토하기로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단 관계자는 최근 군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관 조정협의회에서 “현재 주민들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수용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새만금 전력공급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조기착공이 불가피하지만 주민과의 협상에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달 초 경남 밀양시 지역의 송전선로, 철탑 설치공사와 관련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철탑부지 수용결정을 받아냈었다. 한편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당일 회의에 참석한 군산지역 사회단체 대표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가 뜨거워 감자가 되고 있다.

군산시민회의의 성광문 대표는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은 그동안 한전이 주민과의 대화를 너무 안이하게 했기 때문”이라면서 “토지수용령 검토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주민연대 김환용 상임대표도 “전국에서 송전 철탑 민원이 여러 곳이 있는데 토지수용령을 발동한 곳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군산에서만 한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탑반대 주민 공동대책위 문기수 위원장은 “토지 수용령이라는 것은 일부 토지주의 반대로 사업 진행이 되지 못할 때 발동하는 것이다. 군산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토지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는가”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한전은 새만금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905억원을 들여 군산전력소~새만금변전소 구간에 철탑 92개 등으로 구성된 송전선로를 오는 2012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전북뉴스



전주 한옥마을



진안 마이산



고창 고인돌박물관

‘미술랭’이 콕 찍은 전북 관광명소는

★★★ (매우 추천하는 곳)

전주 한옥마을

진안 마이산

고창 고인돌박물관

세계적 여행안내서인 ‘미술랭 가이드’가 꼽은 한국 관광명소 가운데 전주 한옥마을과 진안 마이산, 고창 고인돌 박물관 등 전북지역 3곳이 포함됐다.

여행지는 흥미있는 곳(★)과 추천하는 곳(★★), 매우 추천하는 곳(★★★)으로 나눠 점수를 매겼다. 전북 3곳은 서울 창덕궁, 수원 화성, 안동 하회마을, 경주 불국사, 순천만, 한라산 성산일출봉, 설악산 등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과 함께 별점 3개를 받았다.

◇전주 한옥마을= 일제강점기인 1930년을 전후로 일본인들의 세력확장에 대한 반발로 고동과 풍납동 일대에 형성된 한옥촌이다. 현재 전주 경기전과 향교를 비롯해 540여동의 한옥 등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전주시는 최근 한옥마을이 ‘솔로시터’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관광

객 500만 명을 맞이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안 마이산= 말의 귀처럼 생겼다해 이름붙여진 마이산은 서봉(암마이산·685m)과 동봉(수마이산·678m) 두개 봉우리로 이뤄져 있다. 비바람의 작용으로 주위 흙이 빠져나가면 서 자갈도 함께 떨어져 내린 ‘타포니(Taffoni) 현상’을 볼 수 있다.

인근에는 운일반반일암, 백운동 계곡, 풍혈방천과 의료관광(헬스 투어리즘)에 초점을 맞춘 ‘홍산 스파’ 등이 있다.

◇고창 고인돌박물관= 고창군은 2009년 고인돌에 관한 소개와 함께 청동기를 비롯한 선사시대 생활을 전시·체험하도록 고인돌박물관을 개관했다.

박물관 1층은 고인돌 수장고·3D 입체영상실·가회전시실이 있으며, 2층에는 상설전시실, 3층에는 체험전시실, 옥상정원을 갖췄다. 고창 고인돌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것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술랭 가이드’는 타이어 회사인 프랑스의 미술랭(미세린)이 1926년부터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퍼내는 유명한 관광 안내서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고창 월곡지구에 귀농인 보금자리 조성

고창군은 25일 고창읍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부지에서 귀농인 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뉴타운 기공식을 가졌다.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내년 완공 예정인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은 월곡리 일대 15만㎡(4만5000평)에 거주 기반시설과 주택 100

가구, 지역사회센터, 근린생활시설, 소공원 등이 들어서는 친환경 귀농마을 조성 사업이다.

월곡지구는 읍내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고 농사·거주환경도 뛰어나 데다 분양가가 3.3㎡당 100만 원대로 낮아 2대1의 분양 경쟁률을 보였다. 주택 분양 계약은 6월에 이뤄

진다. 월곡지구 농어촌 뉴타운은 태양광에너지와 지열 등 친환경·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주택으로 건립되며, 올해 12월 도시가스 공급관도 설치된다.

이강수 군수는 “월곡 농어촌뉴타운을 농업의 미래를 주도할 젊은 귀농인들이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記者 노트

목포시 공직자들이 가장 잘 부르는 노래는 무엇일까? 담부터 말하면 ‘타령’이다. 그 가운데 속칭 ‘18번’이라고 하는 애창곡은 예산 타령과 인력타령이다.

목포시 통계 지표를 보면 인구 24만에 공무원 1100여명, 연간 예산 5500억원 수준이다. 인구

이 꿀이라는 볼멘소리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는 반증이다. 과감히 타성과 관행에서 탈피해야 할 때다.

수차례 기구파편을 통해 이리바꾸고 저리 바뀐, 통합하고 쪼개도 보지만 지나고 보면 ‘도무늬’

목포시 공무원들의 애창곡은?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봐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타령’을 18번으로 삼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에 대해 시청 내부에서도 일을 찾아서 하기 보다는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

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바로 조직에 활력이 없기 때문이다.

과연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가를 한번쯤 되새겨 볼 대목이다. 업무 분장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격부서를 보면 인력부족이 심각하다. 업무의 경중을 따지기 어렵겠지만 능률과 효율성은 반드시 짚어야 한다. 예전부터 해온 관행이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이 모양



고규석

〈서부취재본부 기자〉

이다. ‘예산에는 효율을, 조직에는 탄력을’ 모토로 삼으면 어떨까.

목포시 공무원들이 목 놓아 즐겨 부르는 타령에 ‘활력과 탄력’이라는 탭버린으로 박자를 맞춰 주면 과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 자못 궁금

하다. 먼저 국·소장이 여객동무만 할 것이 아니라 탭버린부터 들어야 한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총괄 지휘는 부단체장인 부시장의 몫이라는 사실이다. 부시장의 역할이 새삼 주목받는 이유다.

오는 7월 조직개편에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혁신이 이루어져 목포시청 안팎에서 다시는 ‘타령’을 들을 수 없게 됐다는 기사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yousou@

목포 홍일고 ‘父子캠프’

28~29일 소통의 시간

목포 홍일고등학교는 28~29일 1박 2일간 ‘부자(父子) 캠프’를 개설, 아버지와 아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동안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아버지

학교’가 개설돼 소외됐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처럼 학교에서 부자 캠프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캠프는 초빙 교수 강의를 시작으로 사물놀이와 축구경기 등을 하며 부자간 소통 부재를 말끔히 씻어낼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뉴스 브리핑

道, 소나무 재선충병 차단 불법 이동 특별단속

전북도는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고자 8월까지 소나무와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도는 조경업체,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유통 관련 자료 작성 및 비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생산 확인요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펼쳐진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주 동물원, 사막여우 7마리 일반 공개

전주 동물원은 최근 사막여우 7마리를 들여와 일주일가량의 적응기간을 거쳐 관람객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전주동물원에 새로 동지를 들게 된 사막여우는 암컷 5마리와

수컷 2마리며 길이 30~40cm, 체중 1~2kg 크기이다. 사막여우는 현존하는 개과 야생동물 가운데 가장 작으며 사막이나 반사막 지대에 서식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대 교내 순찰 등 ‘캠퍼스폴리스’ 발대

군산대가 24일 학생 80명으로 구성된 ‘캠퍼스폴리스’를 구성했다.

이날 황룡문화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군산대 채정룡 총장과 나유인 군산경찰서장, 대원 80여명이 등이 참석했다.

이들 대원은 다음 달부터 교내

순찰은 물론이고 귀가 도우미 역할과 학교 인근의 치안 활동도 맡게 된다.

군산대 관계자는 “은과파출소와 군산소방서, 군산의료원 등과 의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성기자 nogusu@

김제 덕암정보고 ‘114 봉사 물결’ 호응

김제시 덕암정보고등학교가 지난해 4월 청소년봉사단(이하 봉사단)을 발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114(1달에 1번 4시간 이상 봉사)물결운동’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봉사단 100여명은 25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

남면 회성리 사정마을 사과농가를 찾아 적과작업을 도왔다. 덕암정보고 이희택 봉사부장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고통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농업인에게 도움을 준것같아 마음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